

#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1K

## 거시경제 분석과 개발 정책의 젠더화: 양성평등한 발전 모형

Özlem Onaran, University of Greenwich  
Cem Oyvatt, University of Greenwich Eurydice  
Fotopoulou, University of London  
Translated by Sung Ah Bahk

CWE-GAM Working Paper Series: [19-04](#)

### POLICY HIGHLIGHTS

-교육, 보육, 보건,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여성의 무급 가족 돌봄을 감소시키며, 여성이 유급 노동에 참여할 시간을 만들어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킨다.

-공공 사회부문의 임금 상승은 총생산에 상당한 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사회부문은 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의 임금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총생산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다.

-소득주도형 경제라면, 자본세를 높이고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의 진보적 변화가 총생산에 더 큰 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윤주도경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총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WE-GAM 팀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양성 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 분석을 위해 젠더화된 거시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생산능력과잉, 비자발적 실업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현실적인 구조와,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무급 돌봄 분야를 포함한다. 무급 돌봄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서 가족 돌봄을 통해 노동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본 브리프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개요와 정책 분석 예시를 소개한다.

양성평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정과 예산편성을 위한 세부문 모델을 설정하였다. 성평등은 여러 방면에서 거시경제적 성장과 정상관관계를 가진다.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생산성 증대, 일자리 질 향상,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장기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격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은 사회적 부문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제 분야에서는 소수자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본 모형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양성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1K

## 이론적 효과

본 모형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가 거시경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GDP 대비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모형에서 도출된 거시경제적 효과를 서술한다.

### 1. GDP에 대한 사회적 지출 확대의 효과 –

#### 고용 증가

사회부문의 고용을 창출하여 총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효과는 사회 부문의 여성 고용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용과 임금상승이 나머지 시장 경제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부문 내에서의 수요 효과는 모호한데, 이는 공공 사회부문 지출 확대가 가계의 사회적 지출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공공 사회지출의 확대는 모든 종류의 공공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이고, 부분적으로 민간투자를 억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총생산 증가에 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두번째 효과가 더 크면, 순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부문과 비사회부문 모두에서 가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며, 민간 투자 증가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이 확대된다.

그림 1: 신흥경제국의 여성 고용 현황



참고: ILO (2018) 글로벌 임금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저자들이 도출한 값임. 국가별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음.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과테말라, 우루과이: 2014년, 도미니카 공화국: 2015년, 파키스탄: 2016년.

### 2. GDP에 대한 사회적 지출 확대의 효과 – 성별 임금격차 감소

사회적 부분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또한 GDP 대비 공공 지출 확대를 도래할 수 있다. 위 모형에 따르면, 앞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 사회부문의 단기적 고용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

본 브리프의 주요 목적은 공공 지출, 임금 변화,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한 젠더화된 거시경제 모형을 소개함에 있다. 이 모형은 경제 분석과 양성 평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Brief prepared by: Özlem Onaran, Cem Oyvat, Eurydice Fotopoulou and Catherine Hensly

CWE-GAM Working Paper 19-04: [Gendering Macro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Policy: A Theoretical Model for Gender Equitable Development](#)